

한국어 종성의 습득 연구를 위한 음성·음운적 접근

윤은경*

|| 차례 ||

1. 서론
2. 선행연구
3. 한국어의 연음과 중화 습득의 어려움
4. 한국어 받침의 발음교육 방안
5. 결론

[국문초록]

여러 연구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당수가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발음 중의 하나가 받침이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받침의 오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원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종성의 습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첫 번째 원인을 모국어의 음절구조제약으로 보았다. 그로 인해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연음(Liaison)을 정확하게 못 시키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어의 음절구조의 특성상 음절말의 장애음이 미파/불파되므로 음절말 종성, 즉 받침이 지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들리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음절구조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화와 관련하여 유음 받침의 교육 시 동시조음 효과(coarticulation)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음 /ㄹ/의 음향분석을 통해 변이음의 음성적 특징을 정확하게 가

* 대구사이버대학교 조교수

르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문제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동안 있어 왔던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비판하는 기회를 갖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논문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국문주제어: 한국어, 받침 발음 교육, 동시조음효과, 유음, 변이음, 중화, 연음

1. 머리말

한국어의 받침과 관련한 음운현상으로는 음절말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결합하여 인접하는 음절의 초성으로 재음절화되는 연음화 현상과 음절말 끝소리가 불파가 되어 일어나는 중화현상이 있다. 한국어에서는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음절말 자음이 미파 혹은 불파되므로 어두초성에서 각각 제 음가를 지니고 있던 음소들이 음절말에서 중화됨으로써 /ㄱ, ㄷ, ㄱ, ㅁ, ㄴ, ㅇ, ㄹ/의 7개 종성만이 발음된다. 그러나 음절말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결합하게 되면 원래 자신의 음가를 회복한다.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이러한 음절말 종성의 중화와 연음 현상의 습득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국어 받침의 발음교육과 관련한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최은정 2001, 박기영 2001, 요시나가 2002, 이향 2002, 신호철 2003, 김지혜 2005, 양순임 2006, 안연희 2007, 장우균 2009, 이원 2010).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은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언어 간의 차이가 학습에 어려움을 제공한다는 수준의 논의에서 머물고 있다. 예컨대 중국어에서는 장애음으로 끝나는 음절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습 초기에는 받침을 지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과 일본어 역시 한국어의 받침과 같은 종성은 축음이 있는 경우에 중복 자음의

형태로만 나타나므로 받침의 습득이 용이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오류 분석을 통해 공명음과 폐쇄음의 종성이 어느 정도 오류율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음성·음운론적 접근을 통하여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성 습득을 어려워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한국어 종성의 발음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주로 중화와 관련된 흘받침의 습득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음 현상 역시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습득이 잘 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중화 현상은 음절말 종성이 미파/불파됨으로 인해 지각적으로 음이 부각되어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예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동시조음효과로 인한 유음 /ㄹ/의 조음점의 이동에 대해서도 음성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

일본어와 중국어권 화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국어와 목표어를 대조한 대부분 논문들에서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과 산출의 측면 모두에서 중화를 어려워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은정(2001)에서는 ‘가’를 어근으로 7종성을 결합하여 무의미한 단어를 만들어 발음 인지 실험에서 /ㅇ, ㄴ/의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ㄱ/를 /ㄷ/로 대치하거나 /ㄷ/를 /ㄱ/로 대치하는 양상도 조사되었다.

한편 요시나가(2002)에서는 일본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청취실험을 실시한 결과 반수의 피험자에게서 어말종성 비음 /ㄴ/이 약 27%, /ㅇ/이

39.5%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발음 실험에서는 /ㄱ, ㄴ, ㅇ/의 오류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기영(2001)에서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ㄱ/의 오류가 가장 적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ㄴ/와 /ㅇ/의 순으로 오류가 나타났다. 피험자 두 명을 분석한 결과 /ㅇ/이 50% 이상의 오류율을 보였다. /ㄴ, ㅇ/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아 학습자들이 자주 접하는 종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모국어의 음성적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향(2002), 신호철(2003), 김지혜(2004), 양순임(2006), 안연희(2007), 장우균(2009), 이원(2010) 등에서도 종성에 대한 발음 오류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종성의 인지와 발화 실험을 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은 대체로 폐쇄음의 종성을 탈락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ㄹ/의 얼화 /er/ 대체, 그리고 폐쇄음 /ㄷ/에서의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김지혜(2004)는 1년 동안의 학습 기간 내에 있는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종성 습득에 있어서 숙달도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중 양순임(2006)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종성 발음을 음향음성학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비음 종성인 /ㄴ, ㅇ/는 선행 모음을 비음화하며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한 것이 특징적이다.

3. 한국어의 연음과 중화 습득의 어려움

(1) 연음: 음절구조 차이에 의한 오류

연음은 미파/불파 현상에 의해 중화되어 있던 음절말 종성이 인접하는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면서 재음절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꽃’

[꼐]의 종성은 미파/불파 현상의 영향을 받아 [꼐]으로 중화되어 발음되지만, 연음이 되면 ‘꽃이’[꼬치]와 같이 변화되어 /ㅈ/는 초성에서 원래의 음가를 회복하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연음을 쉽게 받아들일 것 같으나 모국어의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한국어와 같은 음절구조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음은 음절을 구성할 때 중요한 개념인 초성최대의 원리(Maximal Onset Principle: MOP)¹⁾와 관계가 있다. 음절을 구성하는 첫 번째 순서는 모음을 가장 먼저 음절핵에 연결시키고, 두 번째로 MOP에 의해 음절핵의 앞에 오는 초성에 있는 자음을 가장 먼저 음절에 연결시킨다. 마지막으로 남는 자음이 있으면 앞부분의 핵에 연결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연음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음운현상이지만 한국어와 다른 음절구조제약을 가지고 있는 영어권, 일본어, 중국어 화자들에게 연음은 습득하기 쉬운 음운현상은 아니다.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학원’을 발음할 때 일반적으로 음절말 종성을 파열시킨다. 그리고 영어에서 /w/는 한국어와 달리 음운론적으로 접근음으로서 자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꺠원]²⁾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전상범(2008:392)에 의하면 위의 방법으로 음절을 구성할 때 음절초에 ‘저해음+(동기관음의) 유음/전이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p, b, f, w/는 [-cor]이라는 자질을 공유하는 분절음이다.³⁾ 따라서 영국의 정치가 ‘Cromwell’을 발음할 때 한국인들은 [크로웰]이라고

1) 허용·김선정(2006)에 의하면, 최대초성의 원리(Maximum Onset Principle)이란 “합법적으로 가능한 한 먼저 초성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음절꼬리를 만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자음은 첫 번째 음절의 음절꼬리보다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이 된다는 범어적(universal)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2) 여기에서의 [꺠]는 파열이 된 종성을 표시한다.

3) 이러한 제약은 영어에 국한된 제약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도 차용어의 경우에는 *(p, b, f)w-의 결합을 볼 수 있다(예, pueblo[pweˈbluː]).

발음하는 반면, 영어권 화자들은 [크롬웰]로 발음을 한다. 또 다른 예로 ‘법원’의 경우에서도 한국인들은 [버뽀]으로, 영어권 화자들은 [법원]으로 종성의 /ㄷ/를 연음시키지 않은 채 한 음절씩 또박또박 발음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음절구조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w/계 이중모음을 가르칠 때에는 앞음절의 종성이 /w/계 이중모음의 초성으로 연음이 되어야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일본어의 경우, 허용·요시다쇼헤이(2013)에 의하면,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안 왔어.’라는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a.N · wa · s'ʌ] 4모라와 같이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장을 한국인 모국어 화자가 발음한다면 3음절로 발음을 하며, 일본인 학습자들과는 달리 [a · nwa · s'ʌ]로 분절하여 발음을 한다. 한국어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음절꼬리에 위치한 비음 /N/이 MOP에 의해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게 되는 연음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최대초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모라음운론(Mora Phonology)을 연구하는 학자들(Murty, Otaka, & Curtler, 2007, Cutler & Otake, 1994; Otake, Hatano, & Mehler, 1993)은 그 해결책으로써 일본어에서는 ‘모라’라고 하는 특수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⁴⁾ 그러나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허용·요시다쇼헤이(2013)에 의하면, 일본어 특수박 /N/은 음절 구조 내에서 모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MOP에 의해서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산에 있어요’와 ‘상에 있어요’를 구분하지 못하고, 한국어 모어화자

4) 그러나 Chomsky(1981)에 의해 주창된 ‘원리(principle)’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 언어에 적용되는 언어보편적인 원리를 다룰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 음운론의 역할이 언어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혀내는 것이라면 일본어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모라와 관련한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들은 ‘산에’를 [sa. ne]라고 발음하는 반면 일본인 학습자들은 [sa. N. e]라고 발음할 수밖에 없다. 즉, 특수박인 /N/이 연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라의 음의 길이를 가진 채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들은 일본인 한국인 학습자와 마찬가지로 L1 간섭현상의 영향을 받아 같은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日本へ行きます’(일본에 갑니다.)의 문장에서 한국인 학습자들은 ‘日本へ’의 경우 음절꼬리의 /N/을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시켜 [ni · ho · ne]라고 3음절로 발음한다. 그러나 일본인 모어 화자들은 [ni · ho · N · e]⁵⁾라고 3음절 4모라로 발음을 하며 재음절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연음을 시키지 않고 받침을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책이’는 [채기]로 발음이 되어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중국인 학생들은 [채이]로 발음하여 장애음 종성을 탈락시킨다.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중국어의 특성상 음절 간의 경계가 분명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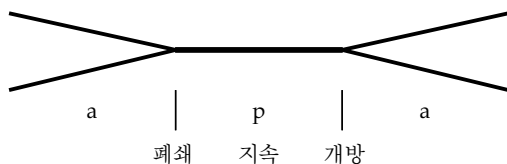
연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연음이 된 발음을 [채기]와 같이 [] 안에 넣어 발음을 표기해 줌으로써 연음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발음의 표기가 철자 암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권장할 만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음절구조의 차이로 인해 연음의 습득을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는 발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일본어의 음절꼬리에 나타나는 비음은 2모라를 갖는 특수박으로 알려져 있고, 조음 위치는 구개수음으로 대문자를 사용하여 /N/으로 적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2) 장애음의 중화: 지각적 부각성(perceptual salience)의 결여

파열음의 조음 과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폐쇄-지속-개방’의 3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한국어의 음절구조제약으로 인해 음절말 종성에서는 마지막의 ‘개방’의 단계를 생략하는 불파 현상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화의 결과 7종성이 후행 자음과 결합되면 경음화가 되어, 예컨대 ‘학교’의 발음은 종성인 /ㄱ/가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켜 [학꾜]로 발음 되거나 동일자음의 중복되어 선행 자음이 탈락하여 [하꾜]로 발음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118> 파열음의 조음 과정



그러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전자도 후자도 아닌 [한교]로 들린다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예, 김신자 2012). 필자가 강의를 했던 천안의 한 대학교의 2-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국인 15명이 ‘학교’를 발음한 것을 듣고 38명 중 29명의 중국인, 일본인 학생이 [한교]로 들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조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가”의 경우에는 즉, /ㄱ/가 초성에서 쓰인 경우에는 연구개의 위치에서 조음이 되나, 받침에 있는 경우에는 경구개의 위치에서 조음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개음이 초성으로 사용될 때와 종성에 사용될 때의 조음점의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나머지 외국인 학생들은 /ㄱ/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하였

다. 이러한 원인은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종성이 불파되는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다보니 받침이 없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어의 경우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절구조의 차이로 인해 장애음 종성을 허용하지 않는 음절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침을 지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모국어 내에서의 지각적 부각성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이다. 일본어의 경우 ‘はい’는 영어의 ‘hi’와 같이, 한국어로는 [하이]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는 발음을 할 때 정중함을 나타낼 경우 성문폐쇄음(glottal stop)이 삽입된다. 앞서 언급했던 천안의 한 대학의 재학생 중 일본인 여성 화자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9명이 [하인]과 같은 발음을 한 반면 10명의 일본인 남자화자에게 질문한 결과 8명은 [하입]과 같이 발음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은 여성 화자와 같이 치경음으로 끝나는 발음을 하였다. 이 발음을 듣고 한국인들에게 듣고 표기하라고 하면 위와 같이 [하인] 혹은 [하입]으로 표기하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자음이 받침이 삽입되었다고 지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일본인 학습자들은 단음절에서 한국어 종성이 불파되는 것을 지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각적 두드러짐이 일어나지 않는 음절말 종성의 음가로 인해 후행하는 형식형태소인 조사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책’에 주격조사 ‘-이/가’를 선택해야 할 경우 종성에서 미파되는 연구개음 /k/가 지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책이 있어요’와 같은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유음인 /ㄹ/ 역시 중국인 학생들은 종성으로 지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길이 막혀요”와 “기가 막혀요”를 구분하지 못해 두 문장을 같은 문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3) 유음의 중화: 동시조음(coarticulation)의 효과

한국어의 유음은 대표적으로 혀끝이 윗잇몸에 닿은 채 혀의 양쪽 측면

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발음하는 설측음 /l/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볍게 혀끝이 윗잇몸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발음되는 탄설음 /ɾ/이 있다. 그러나 설측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l’ 혹은 /y/계 이중모음 /ɭ, ɮ, ɯ, ɰ, ɱ, ɲ/와 결합할 때 조음의 위치가 좀 더 경구개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의 설측음은 /ʎ/로 표시하고 어중에서 /ɽ+ɽ/가 되면 /ʎʎ/로 표시한다. 다시 말해, /l/과 /ʎ/는 조음의 위치에서 차이가 난다. 정리해 보면, 한국어의 유음의 변이음이 출현하는 환경은 6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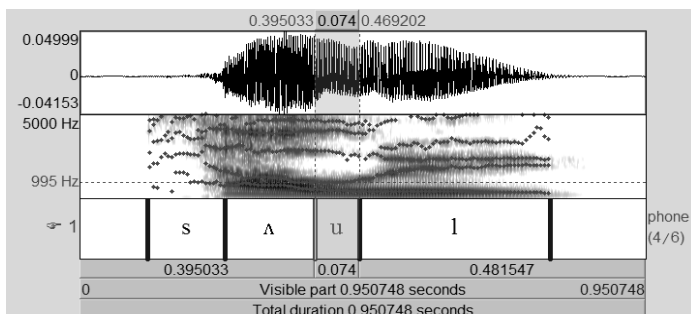
- ① 어두초성 [l, ɾ]: 라면, 라디오, 레몬, 루비
- ② 어중초성 [ɾ]: 달이, 물이, 들었어요. 돌았어요,
- ③ 음절말 중화 [l]: 물, 불, 풀, 달, 탈, 딸, 거울, 서울
- ④ 설측음+설측음 [ll]: 빨래, 빨라, 별로, 할 일, 신라, 신랑
- ⑤ /y/계 이중모음 앞 경구개음화 [ʎ]: 절약, 리본
- ⑥ 설측음 [ll]+/y/계 이중모음 앞 [ʎʎ]: 물락, 전락, 달력, 홀름

위의 예 중에서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③번의 음절말에서 중화가 된 설측음 /l/ (예, 물, 불, 풀, 달, 탈, 딸, 거울, 서울)에 대한 것이다. 이 예들은 위의 ②번과 달리 혀끝과 혃날을 치조에 붙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날, 달’처럼 중설모음과 연결되는 종성과 ‘서울, 굴, 불’과 같이 후설고모음과 연결되는 종성은 음가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에는 치조 부근에서 장애가 일어나는 반면 후자는 경구개에 가까운 부분에서 협착이 일어난다. 이는 모음과 자음의 동시조음효과(coarticulation effect) 때문에 발생한다. 아래의 <그림 2>는 서울 태생의 20대 여성 3명의 음성을 녹음한 것으로 혀끝은 다른 치조음들과 달리 윗잇몸에 닿지 않을 정도로 뒤쪽에 대도록하여 발음한 ‘서울’의 스펙트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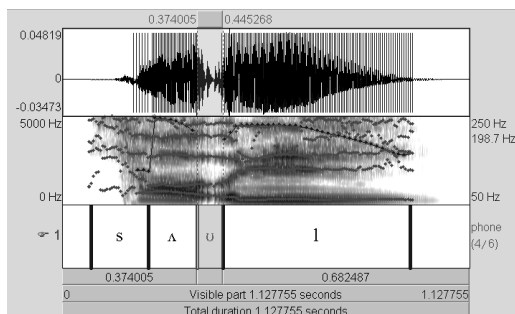
여기에서 /u/모음의 안정구간의 1/2지점에서 측정한 음가는 F1 422 Hz, F2가 920Hz에 해당한다.

〈그림 119〉 치경경구개 쪽에 협착이 된 ‘서울’의 설측음[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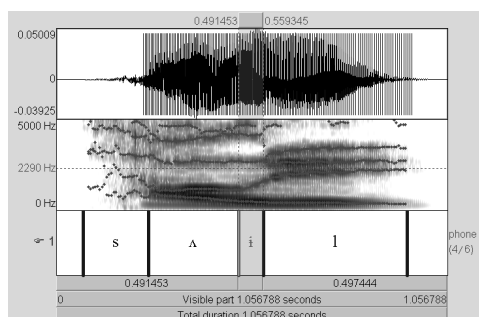
그리고 아래의 <그림 3>은 동시조음효과를 무시하고,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대로 혀끝을 치조 가까이에서 협착하여 발음을 한 ‘서울’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위의 그림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모음의 음가를 측정한 결과 F1은 498Hz, F2는 1097Hz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위에서 언급한 모음의 음가를 /u/로 표현하였다.

〈그림 120〉 혀끝을 윗잇몸에 댄 “서울”의 설측음[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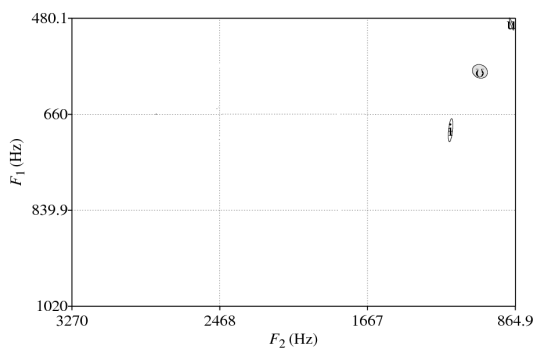
이 결과를 다른 모음의 음가와 비교해 보기 위하여 아래의 <그림 4>과 같이 ‘서울’이라고 하는 무의미한 단어를 만들어서 음가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F1은 596Hz, F2는 1264Hz로 나타났다.

〈그림 121〉 무의미한 단어 ‘서울’의 발음



이 결과를 모음 사각도에 대비하여 본 그림이 아래의 <그림 5>에 나타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면 ‘서울’[sAul]로 실현되는 설측음 앞의 모음 /u/의 음가는 오른쪽 가장 윗부분에 위치해 있고, /i/는 세 개의 모음 중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다.

〈그림 122〉 /u-ü-i/의 모음 위치(단위: H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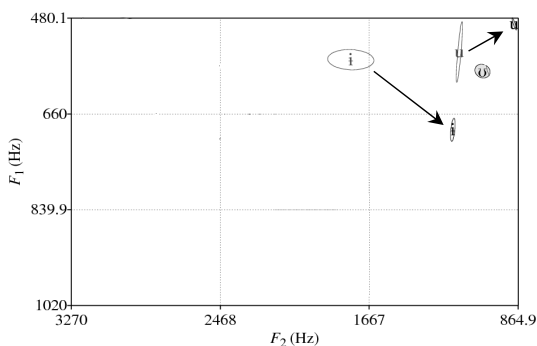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서울’을 발음할 때 /l/의 조음 위치를 치경에 붙였을 경우에 모음의 음가 /ʊ/의 위치이다. 이 모음은 /u/와 /i/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다시 말해, ‘서울’을 발음을 할 때 설측음을 약간 경구개 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윗잇몸의 뒤쪽에 대고 치조음으로 발음을 하게 될 경우 ‘서울’과 유사한 발음이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시조음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두 그림 아래의 <그림 6>과 같이 겹쳐서 표현해 보았다. 아래의 그림에서 화살표가 시작되는 붉은색 원은 단순 모음만 단독형으로 발음했을 때의 음가를 표시한 것이고, 화살표가 끝나는 부분은 설측음을 치조에 대고 발음했을 때의 모음의 음가를 표시한 것이다. 단독으로 모음만 발화했을 때보다는 설측음과 결합하였을 때 조금 더 후설 쪽으로 모음이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음 /ɾ/가 후설모음과 결합할 때에는 초성에서와 같이 치경에 조음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경구개에 가까운 쪽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과 같이 모음의 음가가 변화되어 들린다는 점을 발음 교육 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림 123〉 단모음과 동시조음 /u-ʊ-i/의 모음 위치 비교(단위:Hz)



지금까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받침과 관련된 중화와 연음 현상의 습득을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각적 측면과 산출적 측면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4. 한국어 받침의 발음교육 방안

(1) 지각적(perception) 측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종성의 미파/불파된 음에 대한 지각적 능력이 떨어지므로 이러한 지각적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이 잘 듣고 맞는 단어를 찾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받침을 지각하는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때 받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1) 지각적 훈련 단어 예시

- ① 간, 감, 강, 각, 가
- ② 만, 말, 망, 막, 마
- ③ 발, 밤, 방, 박, 바
- ④ 손, 숨, 송, 속, 소
- ⑤ 잔, 잠, 작, 잣, 자
- ⑥ 달, 단, 답, 당, 다

혹은 음성분석 프로그램(예, Praat이나 Wavesurfer)를 활용하여 식별

실험을 위한 시료를 구성하여 확인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표 1>과 같이 음절말 종성의 지각 실험을 위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여 차이점을 구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블록 안에는 두 개의 유형, 즉 하나의 음성 범주에 있는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된 무변화쌍(non-change trial) 유형(예, AAA, BBB)과 다른 범주에 속한 두 개의 음절으로 결합된 변화쌍(change trial) 유형(예, ABA, AAB)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A-B 단어쌍에 대한 조합은 다음과 같이 ‘AAA, AAB, ABB, BBA, BAA, BBB’의 6가지가 된다. 그리고 3명의 화자들은 ‘123, 132, 213, 231, 312, 321’의 총 6개의 경우의 수로 배치된다. 따라서 한 개의 A-B 단어쌍은 36개(6개의 음절 x 6개의 화자의 경우의 수)의 조합을 갖춘 순서쌍의 블록을 구성하게 된다. /감-간/의 단어쌍을 예로 들면, ‘감1감3간2’의 시료는 A의 자리에 첫 번째 화자가 발화한 /감/를, B의 자리에는 세 번째 화자가 발화한 /감/를, X의 자리에는 두 번째 화자가 발화한 /간/를 500ms간격으로 배치하여 토큰들을 구성할 수 있다.

<표 1> ABX 실험 시료용 /감-간/쌍의 한 블록 구성의 예

모음쌍 화자	AAA	AAB	ABB	BBA	BAA	BBB
화자1	감1감2감3	감1감2간3	감1간2간3	간1간2감3	간1감2감3	간1간2간3
화자2	감1감3감2	감1감3간2	감1간3간2	간1간3감2	간1감3감2	간1간3간2
화자3	감2감1감3	감2감1간3	감2간1간3	간2간1감3	간2감1감3	간2간1간3
	감2감3감1	감2감3간1	감2간3간1	간2간3감1	간2감3감1	간2간3간1
	감3감1감2	감3감1간2	감3간1간2	간3간1감2	간3감1감2	간3간1간2
	감3감2감1	감3감2간1	감3간2간1	간3간2감1	간3감2감1	간3간2간1

(2) 산출적(production) 측면

위의 지각 훈련 이외에도 중화된 받침의 발음 교육을 위하여 아래의 표를 활용할 수 있다. <표 2>에는 폐쇄음과 비음 종성을 조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해 놓은 자료가 있다. 양순음 종성은 /ㅂ/와 /ㅍ/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조음위치는 같으면서 단지 비강으로 공기가 새어 나가는지의 여부만 다르다. 따라서 중화된 /ㅂ/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ㅍ/을 발음하여 공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한 후에 코를 잡아 더 이상 구강이나 비강에서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다른 치조음이나 연구개음도 방법은 동일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장애음에서의 조음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비강으로 나가는 기식의 양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연습을 할 때 ‘음, 음, (코막기)음’의 단계를 거쳐 연습할 수 있다.

〈표 2〉 조음방법의 차이를 이용한 받침 교육

	폐쇄음	비음
양순음	ㅂ	ㅍ
치조음	ㄷ	ㅌ
연구개	ㄱ	ㅇ

한편 음절말에서의 미파/불파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단 조음점을 붙였다 하면 떼지 않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빠, 아빠’를 연습시킬 때 [ㅂ]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폐쇄-지속-개방’의 3 단계를 거치는 것을 확인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의 한 번은 조음점을 붙이게 한 후에 모음을 발음하지 않음으로써 조음점을 떼지 못하게 하여 공기가 입에서 새어나오지 않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 아래의 <표 3>과 같이 조음점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면서 중화되는 자음이 두 개밖에

없는 양순음 /ㅂ/, ㅍ/부터 시작하고, 다음으로 중화되는 음의 수가 적은 연구개음 /ㄱ, ㅋ, ㆁ/, 마지막으로 치조음을 연습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표 3〉 미파/불파 훈련 단어 예시

[p̚]	아바, 아바, 압 아파, 아파, 압
[k̚]	아가, 아가, 악 아카, 아카, 악 아까, 아까, 악
[t̚]	아다, 아다, 알 아타, 아타, 알 아따, 아따, 알 아사, 아사, 알 아싸, 아싸, 알 아자, 아자, 알 아차, 아차, 알 아짜, 아짜, 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습을 할 경우, /ㄷ, ㅌ, ㄴ, ㄸ, ㅊ, ㅌ, ㅍ/가 대표 음인 /ㄷ/로 발음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도 조음점을 떼지 않는 행위로부터 자연스럽게 중화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유음의 경우에는 음절말에서 중화가 된 설측음 /ㄹ/로 발음된다(예, 물, 불, 풀, 달, 탈, 딸, 거울, 서울). 이 경우 중국어는 유음의 음절말 종성에서 열화음(兒化韻)이 난다. 이때 열화를 한국인들이 듣고 평가할 때에는 유음으로서의 하나의 자음 /r/이 아니라 ‘얼’이라는 1음절로 들린다. 따라서 ‘서울’을 발음할 때 ‘서우얼’로 들리게 된다. 따라서 한국인 청지들은 두 번째 음절의 ‘울’을 ‘우얼’이라고 하면 /wʌr/의 이중모음으로 들리므로 우선적으로 입모양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습자 본인들은 입모양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거울을 준비하여 입술 모양에 변화가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설측음이 변이음으로 존재하지 않아 ‘서울’을 [souru]라고 음절을 늘려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음절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윗잇몸에 혀끝을 대고 떼지 않는 연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때 앞서 <그림 6>의 음성 스펙트로그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성의 위치에서는 유음이 후설모음과 결합할 때 치조에서 경구개 쪽으로 조음점이 이동되어 발음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윤은경(2013 심사중)에 의하면, 중화된 종성에 후행하는 자음의 74% 이상이 경음화, 격음화, 자음동화와 같은 음운 현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화를 연습하는 경우에는 단음절에서 연습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 후 후행 자음이 오는 환경에서의 연습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한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받침의 오류 분석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효율적인 교육 방안의 마련을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오류의 원인에 대해 음절구조의 차이점과 지각적 부각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특히 유음의 변이음의 음성적 실현에 대해서 음향학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어의 음절구조의 특성상 음절말 종성이 불파되어 지각적으로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이 받침을 정확하게 지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그 때문에 생기는 조사 선택의 문제까지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각적 부각성은 일본어의 성문폐쇄음의 삽입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각 훈련 및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교수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유음의 음성학적 실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교재에서 다루는 것과 같이 치조설측음이라 하여 혀끝을 윗잇몸에 붙여 발음을 해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은 발음을 할 수 없음을 밝혔다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A phonetic/phonological approach to teaching pronunciation of Korean syllable-final consonants

Yoon, Eunk Yung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analyze the previous studies for education on the pronunciation of Korean final consonants, and to discuss conflicting opinions or issues that must be complemented.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eaching pronunciation of syllable-final consonants(받침), which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pronunciations of Korean for foreign learners. In the present paper, the causes for the errors will be sought. The categories of errors in the pronunciations of final consonants were divided into three to examine the causes and solutions. First, because of the nature of Korean syllable structures, obstruents in syllable finals should not be plosive so that syllable-final consonants are not prominently perceived. Second, due to the constraints on syllable structures between L1 and L2, liaison is not made accurately. This cause was explained using examples of syllable structures in English, Japanese, and Chinese. Finally, In particular,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the phonetic features of allophones are not accurately taught were discussed acoustically. The present study is academically meaningful in that it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criticize opinions in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and presented teaching methods for taking the education on the pronunciation in better directions.

Keywords :

syllable-final consonants, Teaching pronunciation of Korean, variants, coarticulation, contrastive analysis, liquids, lateral

참고문헌

□ 단행본

전상범 (2008),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논문

김신자 (2012), 「한국어 자음과 받침의 발음지도방안」, 『중국조선어문』 제181호, 46-52면.

김지혜 (2005),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 (2001),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장애음 오류 분석」, 『冠嶽語文研究』 제26집, 177-201면.

권현주 (2006), 「특수음소의 변이음을 이용한 한국어 종성 발음 인지교육 방안 : 일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일본어문학』 제31집, 35-54면.

박기영 (2001),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에 대한 일고찰 - 특히 공명 자음의 발음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26집, 225-245면.

박기영 (2010), 「한국어 음운론과 한국어 발음 교육의 상관성에 대한 일고찰」, 『語文論集』 제43집, 7-30면.

신호철 (2003), 「한국어 유음(流音)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 중국어 모어 화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16집, 253-272면.

안연희 (2007), 『중국인 학습자의 종성 발음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양순임 (2006), 「중국인 학습자연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종성에 대한 음향,청취 음성학적 오류분석」, 『한국어 교육』 제17-3호, 163-183면.

양순임 (2007), 「연음규칙 적용에 따른 오류 분석 -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언어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제18-3호, 123-144면.

요시나가 이쿠요. (2002), 『한국어와 일본어의 자음 앞 비음에 관한 음성학적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은경 · 심보토모코 (2012), 『한국어의 음절구조 관점에서 본 일본어 특수박의 발음교육』, 『Foreign Languages Education』 제19-4호, 523-543면.
- 이원 (2010),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 발음의 오류 양상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강 (1999), 『과열음 계열의 일본어 축음에 관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지속시간 연구』, 『언어연구』 제19권, 99-104면.
- 이향 (2002),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우균 (2009), 『중국어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상범 (2008), 『음운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은규 외 (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발음 47』, 랭기지플러스.
- 최은정 (2001), 『일본어 모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용 · 김선정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발음 교육』, 박이정.
- Cutler, A. & Otake, T.(1994), Mora or phoneme? Further evidence for language-specific listening. J. Mem. Lang. 33, pp.824-844.
- Murty, L., Otake, T., Cutler,& A.(2007), Perceptual tests of Rhythmic Similarity: I. Mora Rhythm, Language and Speech, 50(1), pp.77-99.
- Otake, T., Hatano, G.; Cutler, A., & Mehler, J.(1993), Mora or syllable? Speech segmentation in Japanese. J. Mem. Lang. 32, pp.358-378.
- Yoshida, S.(1996), 『Phonological Government in Japanes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Faculty of Asian Studies monograph. New series; no 20.